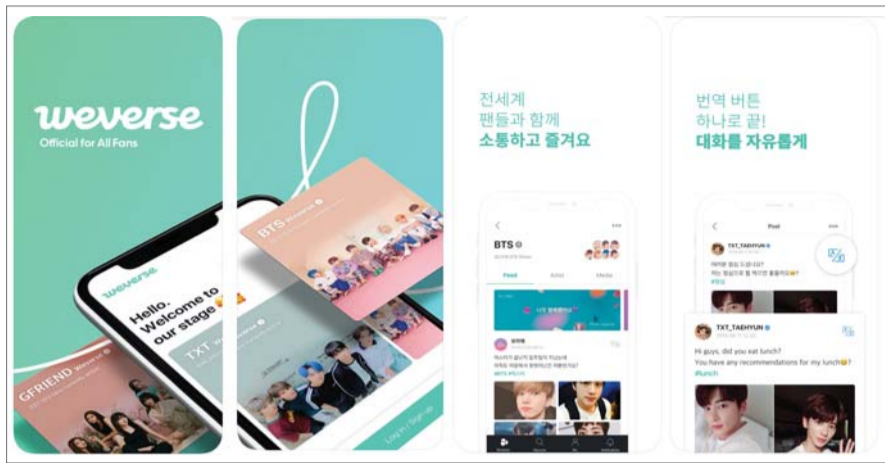


# 하이브, '빅히트 뮤직' 물적분할... 글로벌 레이블 확장 가속

지배구조 개편으로 매출한계 극복  
美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 인수  
글로벌 아티스트 IP 활용 MD 진출  
자회사 콘텐츠플랫폼 위버스 수혜  
저스틴비버·블랙핑크 등 합류전망



위버스 애플리케이션.

하이브(빅히트)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레이블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빅히트 뮤직'을 신설했다. 빅히트는 지난해 10월 기업공개(IPO) 당시 매출구조가 방탄소년단(BTS)에 치중돼 성장성에 한계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빅히트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이름을 하이브로 변경했다.

###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 인수... 레이블 확장 기대감 ↑

지난 1일 하이브는 기존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레이블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해 '빅히트 뮤직(BIGHIT MUSIC)'을 신설한다고 공시했다.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관련 사업을 하는 자회사 '하이브아이피(HYBE IP)', 공

연 제작 사업을 하는 '하이브 쓰리식스티(HYBE 360)'는 흡수합병했다.

'빅히트 뮤직'은 음반·레이블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사업부인데, 음반 제작 및 유통과 소속 연예인들의 매니지먼트를 맡게 된다. 하이브는 '빅히트 뮤직'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돼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하이브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세븐틴소속), 쏘스뮤직(여자친구 소속), KOZ엔터테인먼트(지코 소속) 등 다양한 레이블을 보유 중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이번에 분할되는

빅히트 뮤직의 매각 혹은 기업공개(IPO)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핵심 사업 부문의 효율성 제고, 사업 부문 간 시너지 확대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에는 미국 자회사 빅히트아메리카가 이타카 홀딩스(Ithaca Holdings)를 1조1840억원에 인수해 레이블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상태다. 이타카 홀딩스는 미국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 등

다수의 팝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활동까지 하고 있다.

빅히트 아메리카가 이타카의 지분 100%를 보유한다. 이번 인수를 위해 1조728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하며 하이브가 100% 출자한다. 하이브는 자금 조달을 위해 4400억원 규모의 별도 유상증자도 단행할 예정이다.

### ◆콘텐츠 플랫폼 '위버스'...저스틴 비버 등 합류하나

하이브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기존 매출구조의 한계를 뛰어넘고,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하이브는 BTS 의존도가 높다는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글로벌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해외 공식 상품(MD)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위버스샵의 관련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브는 지난 1월 자회사 '위버스(Weverse)'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V LIVE)'를 1년 내 지분율 51대 49로 통합하고, 와이지(YG)플러스의 지분 18%를 획득해 YG엔터테인먼트(블랙핑크 소

속)와의 협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위버스'는 팬들 간의 소통이 가능한 피드(Feed), 아티스트가 남기는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아티스트(Artist), 아티스트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는 미디어(Media)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누적 앱 다운로드 수는 2500만건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하반기 하이브 매출액의 49.6%를 차지했다.

하이브의 글로벌 레이블 확장 소식에 콘텐츠 플랫폼 '위버스'가 자연스럽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평가된다.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블랙핑크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합류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박정엽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플랫폼은 메가 히트 콘텐츠의 축적, 유저 유입, 플랫폼 지배력 확대의 선순환 과정에서 발전하는데, 하이브의 '위버스'는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 플랫폼 선점에 성공했다"며 "연초 네이버 '브이라이브' 양수를 통해 스트리밍 공연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했고, YG·이타카 홀딩스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위버스 입점이 확실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올 미니신도시급 대단지 4.7만 가구 분양

서울 1.2만가구 등 전국 9곳서 공급  
부대시설·인프라 갖춰 청약률 높아  
현대 화성봉담 프라이드시티 등 주목

올해 3000가구 이상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단지가 대거 분양된다. 일부 지역은 대형건설사의 참여로 지역 대표 아파트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4월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연내 전국적으로 3000가구 이상 미니신도시급 분양 물량은 9곳, 4만741가구 규모다. 이는 지난해 6곳, 2만6356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1.5배 가량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 1만2032가구 ▲부산 4043가구 ▲경기 1만1109가구 ▲경남 3764가구 ▲대전 3463가구 ▲광주 3214가구 ▲경북 3116가구 등 수도권에 2만3141가구, 지방에 1만7600가구 등이다.

대단지 아파트는 내부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조경 및 부대시설 등이 풍부해 입주자의 편의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입주 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단지 주변에 교육시설, 교통망, 편의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규모에



'화성 봉담 프라이드시티' 투지도.

서 얻는 랜드마크 효과도 높다.

그렇다보니 매머드급대단지는 청약률,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게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3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는 다양한 부대시설과 주변 인프라 조성 등으로 단지의 가치는 물론 지역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연내 분양 되는 단지에도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1블록)과 현대건설(2블록)은 오는 5월 경기도 화성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용지에 '봉담 프라이드시티' 59~105㎡ 4034를 분양한다.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총 2개 블록으로 조정면적이 약 50%에 달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니얼 커크우드' 교수

가 단지 조경에 직접 참여해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조경으로 꾸며진다. 여기에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 하우스 등의 차별화된 고급 커뮤니티 시설들도 조성된다.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에서 '김해울타 더 스카이스티 제니스&프라우' 아파트 64~163㎡ 3764가구, 오피스텔은 23~59㎡ 629실 중 아파트 1253가구 및 오피스텔 629실을 일반분양 중이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바로 북쪽에 위치한 칠산로를 통해 김해 구도심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커뮤니티센터 내에는 대규모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선다.

/이규성 기자 peace@

## 한국투자증권, IRP·TDF 이벤트 진행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영업점가입자를 대상으로 '한투 IRP, TDF로 해봄'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관리점이 영업점인 IRP계좌에 입금한 후 한국투자자산신탁운용 등 7개 대

상 운용사의 타깃데이트펀드(TDF)를 매수하면 운용사별 합산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운용사별 3개 구간, 구간별 선착순 100명씩 7개 운용사 합산 총 2100명이

게 혜택이 주어진다. 여러 운용사 상품을 매수한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주면서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금의 운용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연금 투자상품으로 통한다.

/송태화 기자

## 5G SA 상용화 추진, 수요증가 호재

### 株라쿨라의 종목 에이치시티

5G 스마트폰 모델 시험인증 증가  
VR기기 보급도 늘어 고성장 기대

가상현실(VR) 기기를 포함한 5세대 이동통신(5G) 연결기기가 증가하며 에이치시티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통신 3사가 올해 상반기 안에 5세대 이동통신(5G) 단독규격(SA) 기술의 상용화 방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면서다. 저지연 성능 구현이 가능한 5G 인프라 구축의 시작이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김도윤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에이치시티에 대해 "5G 인프라 구축 본격화로 무선통신 시험 대상 제품과 제품당 시험항목이 모두 늘고 있다"며 "전기차용 배터리, VR기기, 자율주행차 레이더로 시험인증 범위가 확대돼 주목하라"고 분석했다.

에이치시티는 5G 스마트폰의 시험 인증을 담당할 기업이다.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사업을 한다. 5G 스마트폰은 4G 모델보다 시험 항목수와 기술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모델당 평균 시험인증비용도 많이 든다.

또한 시험인증은 모델 단위로 진행돼 신규 출시 모델 품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아이폰 12 시리즈 등 신규 5G 스마트폰 모델이 대거 출시되며 연결기준 매출액이 534억으로 전년보다 12.7% 늘었다. 영업이익도 104억원으로 44.4% 급증했다.

올해도 5G 스마트폰 모델 시험인증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핸드셋 시장에서 5G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해 49%에서 올해 87%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5G 스마트폰 모델 시험인증도 늘어나 올해에도 고성장이 기대된다"는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국내 통신 3사가 올해 상반기 안에 5G SA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통신 3사는 데이터 전송은 5G망을, 데이터 처리는 롱텀에볼루션(LTE)망을 이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채택 중이다.

VR기기 보급이 늘어난 것도 에이치시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5G망을 사용하는 VR기기의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대에 대한 KC인증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에이치시티를 통한 시험인증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중대형 배터리 시험인증이 가능한 설비투자 증설도 끝나며 올해 하반기부터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대표적으로 진행될 시험은 폭파 등 화재와 관련한 것으로 안정성 인증 서비스 분야로 판단된다"며 "배터리 셀 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에 대한 안정성 시험도 가능한 시설을 신축 중이기 때문에 시험 대상 제품 수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서치알음은 에이치시티의 적정주가로 2만1300원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예상 주당순이익(EPS) 1420원에 주가수익비율(PER) 15배를 적용해 계산했다"며 "성장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적정주가 산정에 사용한 PER 15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vin@